

# 일본의 생활개선사업 현황과 21세기 전망

이금옥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자원과 생활지도사

## Current Status and Perspectives for the 21st Century of Rural Living Improvement Program in Japan

Geum Ok Lee

Rural Living & Resources Development Division,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 Summary

The rural living improvement in Japan operates in considerations of socio-economic circumstances of rural community as in Korea. After 1945 the program emphasized the improvement of living conditions such as poverty alienation, improvement of house and toilet, nutrition after war. From 1955, health programs including better cooking and nutrition, house modification and improved living conditions corresponding to the goal of the developed country were carried out.

In 1965, the goal of the rural home economics was focused on the harmonized production and living, improvement of the levels of rural living, health and building rural community. From 1975, the goals of the program were to organize the farming in the better ways and improvement of rural women's role. In 1985, making agreeable living conditions was emphasized under the goal of vital rural society.

From the period of Heysey(1989~), for better living of rural people the government is emphasizing the programs including farm labor management, utilization of farm products, farm management and rural environments. Recognizing the important influencing resources of agents in extension services, on the job and education was implemented step by step from basic to planning to upgrade competencies.

The government is trying to construct better rural infrastructures, encouraging direct selling the value-added processed food from local farm products with rural people's real name and other countryside resources. Major programs in the 21st centuries are building better rural society with men and women together and considering elders as well as new farmers.

**Key Words : Rural Living Improvement Program, Agricultural Extension, Community Development**

### I. 서론

일본의 생활개선사업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사회·경제적 및 농촌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목표를 갖고 추진하였는데 1945년대에는 전후의 피폐해진 사회 속에서 빈곤에서의 탈출을 고려하여 생활의 합리화를 목표로 주거·변소

개선, 영양개선, 55년대에는 고도성장하의 대응에 대한 보다 좋은 농가생활개선을 위하여 공동취사, 공동보육, 주택개량, 건강유지, 65년대에는 생산·생활의 조화를 목표로 생활수준의 향상, 건강관리, 커뮤니티 형성, 75년대에는 농업의 조직화, 농촌부인의 역할 향상, 85년대에는 활력있는 농촌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 정비, 평성(平成)년대(1989년)에는 농업자의 생활 쾌적화를 목표로 농업노동, 농산물활용, 농가경영, 농촌환경을 중점 지도하고 있다. 농업개량보급원의 직무교육제도는 기초 교육부터 기획·관리능력 개발에 이르는 단계적 추진과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기반이 조성되어 어느 지역을 가든 농가 실명제의 생산물 및 가공 제품을 볼 수 있을 정도로 활발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21세기에 중점 과제로서는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회, 고령자 대책, 신규취농의 촉진 등을 제도 내에서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일본은 2차 대전의 패전 참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와중에서도 지방자치제를 도입하였다. 1947년 헌법에 규정된 지방자치제 실시 시행령에 따라 지방화 시대가 열린 이후, 60여 년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는 지금 경제, 문화, 산업은 고도로 성장하고 국민생활을 안정, 성숙되고 있다. 1991년부터는 중앙정부의 집권적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이 분권화 되어 지방화시대는 정착 단계에 들어서고 지방자치단체 제도는 안정된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한편, 농업개량보급사업은 생활개량보급사업과 함께 194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보다 10년 먼저 시작되었다. 일본의 생활개량보급사업도 보급과제의 기본은 의, 식, 주, 가정관리에 두면서 농촌생활 신지표와 같은 생활환경의 쾌적화와 매력있는 생활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농업경영 확립을 지향하고 있다. 1988년 '농산어촌 부인의 날'을 3월 10일로 제정하였고, 1994년에는 지방자치단체와 농림수산업 단체의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농산어촌활동추진기구'가 발족되는 등 여성의 참여와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21세기에는 특히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과 제도를 더욱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정책 개발 그리고 취농을 하려는 여성인력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침들이 수립, 시행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일본의 생활개량보급사업은 (사)농촌생활종합연구센터, (사)농산어가생활개선연구회 등의 민간단체와 자생조직인 '생활개선실행그룹' 활동, 농업종합연구소, 식품종합연구소, 노동위생연구소 등 국가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인 생활개선기술연수관 등에 사업을 튼튼하게 떠받치는 지주가 되어 어떤 상황 하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발전해 나가고 있다.

## II. 생활개량보급사업 추진 현황

일본의 생활개량보급사업은 농업개량보급사업과 함께 우리나라보다 10년 앞선 194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생활개량보급사업 과제의 기본은 의, 식, 주, 가정관리에 두면서 농촌생활환경의 쾌적화와 매력있는 생활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농업경영 확립을 지향하고 있다. 1988년 '농산어촌부인의 날'을 3월 10일로 제정, 1994년 지방자치단체와 농림수산업 단체의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농산어촌활동추진기구'를 발족하는 등 여성의 지위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사)농촌생활종합연구센터, (사)농산어가생활개선연구회 등의 민간단체와 자생조직인 '생활개선실행그룹' 활동, 농업종합연구소 등 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인 생활개선기술연수관 등에서 사업을 튼튼하게 떠받치는 지주가 되어 어떤 상황 하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발전해 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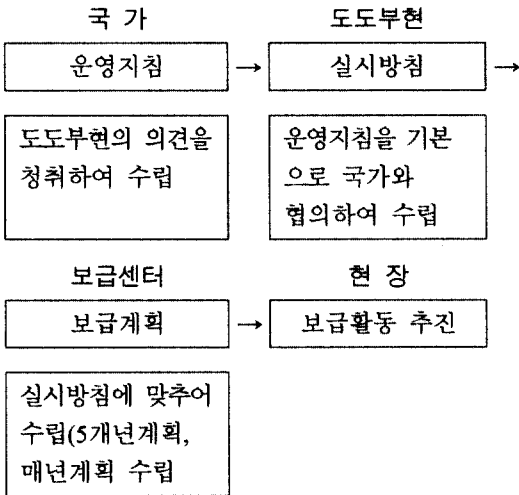
### 1. 일본 협동농업보급사업의 특징

일본의 농촌지도사업은 "협동농업보급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법률인 "농업개량조장법"에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 법률은 1994년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매 5년마다 농림수산성에서는 "협동농업보급사업의 운영에 관한 지침"을 시달하고 있으며 도도부현(都道府縣)의 농업개량보급

사업을 담당하는 과(농정기획과, 농업진흥과, 농업기술과, 농업경영과 등)에서는 농림수산성의 지침에 의거 도도부현단위 “협동농업보급사업의 실시에 관한 방침”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현 단위 실시방침은 5년 동안에 이루어야 할 보급사업의 대강을 정한 것으로 이 방침에 의거 각 농업개량보급센터에서는 5년간의 “보급지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1) 국가와 도도부현에 의한 협동사업

(1) 국가와 도도부현이 협의해서 정한 방침에 따른 사업추진



(2) 도도부현에 의한 지역농업개량보급센터 설치와 일정지역을 가진 보급직원(개량보급원과 전문기술원)의 배치

(3) 보급사업의 일환으로서 농업대학교에서 농업후계자 등에 대한 연구교육 실시

(4) 보급사업에 필요한 경비로서 국가에 의해 「협동농업보급사업교부금」 지원

### 2) 시험연구기관과 농업자와의 연계 역할

시험연구기관에 기술개발 요청, 시험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현지 적용실증 등에 의해 보급하며 농림수산성과 관

계기관과 협력 추진, 보급직원의 국내·외 시험연구기관에 파견 연수 등이다.

### 3)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농업의 발전은 농업자 개개인의 의욕이나 기술력에 의존하므로 보급사업은 직접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량보급원과 농업자와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여 현장에서 직접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기술·경영개선을 도모해 나가는 농업자를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추진한다. 후계 농업을 담당할 청년농업자에 대한 취농정보의 제공, 단기연수 등의 신규 취농 촉진을 위한 보급활동의 실시 등이다.

### 4) 농업과 농촌생활의 일체적 활동

농업생산과 농가·농촌생활을 지극히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농업을 직업으로서 선택 가능한 매력있는 경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생산과 생활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 2. 협동농업보급사업의 추진체계

일본의 협동농업 보급사업 체계는 종적으로는 농림수산성과 도도부현이 협의, 지도, 조성을 도모하며 도도부현은 지역의 농업개량보급센터를 통하여 시험연구성과의 보급, 개량보급원의 연수를 촉진한다. 지역농업개량보급센터는 농업자, 신규 취농 희망자를 대상으로 시험연구 및 농정의 요구와 신규 취농활동의 촉진과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횡적으로는 농업대학교, 시험연구기관, 보급협력위원회와 협력하며 시정촌 농업협동조합, 농업위원회, 보건소, 교육위원회 등과 연락 조정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농림수산성을 기능을 살펴보면 소비자보호, 농림수산물 생산단계의 리스크관리(농약, 비료, 사료, 동물, 의약품 등), 리스크 커뮤니케

이전(risk communication), 여성·신규 취농, 고령자, 도시 농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능을 갖고 있다. 지도사업 관계는 경영국 소관이다. 2001년 1월 16일 부인·생활과에서 개편된 여성·취농과는 취농추진반이 있어 취농촉진기획, 취농지원자원금 제도의 운영, 취농촉진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 육성지도반에서 청년농업자 육성, 확보, 기획, 청년농업자 등에 대한 연수교육, 농업대학교, 농업연수교육시설, 교육기관과의 연대를 추진하며 활동촉진반에서 청년농업자 등의 활동 촉진, 국제교류, 보급분야의 국제협력의 추진, 공동참여추진반에서 농산어촌의 남녀공동참여 촉진과 고령자대책반에서 고령농업자의 농업관계 활동의 촉진을 도모한다.

### 3. 생활개량보급사업의 추진

#### 1) 인 력

1950년부터 전문기술원 제도가 있었으며 1954년부터 전문기술원은 피복, 식물, 주거, 가정관리, 보급방법의 5분야로 분화되어 있다. 1961년~1963년까지 각 연도에 전문기술원 46명씩의 증가가 있었으며 1974년에는 전국에 250명에 이르러 1977년까지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개량보급원은 1966~67년에 이르러 2,350명의 규모로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2001년 현재 1,213명, 2002년 현재 전문기술원 635명, 보급원 9,214명에 이르고 있다.

#### 2) 사업 내용

일본의 지도사업과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사회·경제적 및 농촌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목표를 갖고 추진하였다. 1945년대에는 전후의 피폐해진 사회 속에서 빈곤에서의 탈출을 고려하여 생활의 합리화를 목표로 주거, 변소개선, 영양개선 등을 중점지도 하였고, 55년대에는 고도성장하의 대응에 대한 보다 좋은 농가생활개선을 위하여 공동취사, 공동보육, 주택개량, 근로자의 건강유지 등을, 65년대에는 생산과 생활의 조화를 목표로 생활수준의 향상, 건강관리, 커뮤니티 형성을, 75년대에는 다양화에 대응하여 농업의 조직화, 농촌부인의 역할 향상, 85년대에는 활력있는 농촌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정비를, 평성년대에는 지역사회 생활에 있어 농업자의 생활 쾌적화를 목표로 농업노동, 농산물활용, 농가경영, 농촌환경을 중점 지도하였다. 연대별 주요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1> 협동농업보급사업 인력의 변화

구 분	1985	1991	1992	1993	2000	2001	2002
도도부현(전문기술원)	727	671	674	671	638	634	635
(농업관계)	585	547	550	555	543	546	-
(생활관계)	142	124	124	120	95	88	-
지역농업개량보급센터(보급원)	11,007	10,448	10,407	10,387	9,605	9,358	9,214
(농업관계)	9,115	8,712	8,697	9,244	8,309	8,145	-
(생활관계)	1,892	1,736	1,710	1,694	1,296	1,213	-

출처 : 농림수산성, 2003.

〈표 2〉 일본의 지도사업과제의 연대별 주요내용

구 분		소화(昭和) 20년대	昭和 30년대	昭和 40년대
시대배경	사회·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후의 피해</li> <li>재해자의 유입</li> <li>실업</li> <li>식량부족</li> <li>조선전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고도성장</li> <li>정촌(町村) 합병의 촉진</li> <li>무역자유화의 촉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반 호경기 표출</li> <li>열도개량법</li> <li>오일 쇼크</li> </ul>
	농촌사회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등사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등사회</li> <li>노동자의 유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화와 과속화의 2극 분화의 진행</li> </ul>
	농정의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량증산</li> <li>농지해방(개혁)</li> <li>농촌민주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농촌건설</li> <li>농협 합병</li> <li>농업기본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합농정의 추진</li> </ul>
생활관계보급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빈곤에서의 탈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도성장하의 대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적 획일화의 직시</li> </ul>
	중점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활의 합리화</li> <li>생각하는 서민의 육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가생활의 보다 좋은 상태</li> <li>생활에 대한 보다 좋은 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산과 생활의 조화</li> <li>농촌생활환경의 정비</li> </ul>
	보급지도의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별농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별농가 및 생활개선 실행그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활개선실행그룹</li> </ul>
	중점지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거, 변소개선</li> <li>영양개선, 보존식, 개량작업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동취사, 공동보육, 공동세탁, 주택개량, 근로자의 건강유지, 농어인을 만드는 가정교육, 이가생활개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활수준의 건강관리, 노동적정화, 기초집락군의 정비와 커뮤니티 형성</li> </ul>
	보급활동의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별기술,</li> <li>개별순회기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그룹의 육성과 지역농 밀지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농밀지도</li> <li>복합기술의 공동해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小) 지구제 (市町村주재방식 소화 26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中) 지구제 (소화35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역활동체제 (소화 45년~)</li> </ul>
대표적 보급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녹색자전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슬라이드</li> <li>스쿠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8미리 영사기</li> </ul>	
주요한 제도의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개량조장법 제정 (소화 23년)</li> <li>농업연구·보급,</li> <li>교육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개량보급소의 설치 규정</li> <li>- 농업개량자급의 도입지도</li> <li>- 농업구조개선사업의 추진지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합자급의 도입지도</li> </ul>

구 분		昭和 50년대	昭和 60년대	平成(平成)년대
시대배경	사회·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안정성장</li> <li>복지지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제화의 진전</li> <li>산업구조의 변화</li> <li>안전과 사회의 성숙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제적 시찰의 대응 검토</li> <li>사회의 성숙화</li> </ul>
	농촌사회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혼주화의 진행</li> <li>인구 고령화의 진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령화의 진행</li> <li>가격의 다양화</li> <li>기술의 고속화, 다양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자, 고령화의 진행</li> <li>여성활동의 활성화</li> </ul>
	농정의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리이용 재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전농업의 확립</li> <li>가격정책의 직시</li> <li>도시와 농촌의 교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경영체의 육성</li> <li>UR 대책</li> <li>농업기본법의 직시</li> </ul>
생활관계보급사업	중점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양화예의 대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촌형 장잔(長殘)사회에의 대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녀공동참여사회의 형성</li> </ul>
	중점지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농업을 고려한 생활개량 장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한 농가생활의 확보와 활력있는 농촌사회를 위한 생활개량활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업생활, 지역사회 생활에 있어서의 농업자의 생활의 쾌적화</li> </ul>
	보급지도의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활개량실행그룹</li> <li>생산조합부인부</li> <li>농촌주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활개량실행그룹</li> <li>생산조합부인부</li> <li>농촌지역주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자</li> <li>농촌여성</li> <li>농촌지역주민</li> </ul>
	보급활동의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생활의 팀 활동</li> <li>지역과제의 공동해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개량과 생활의 일체적 활동</li> <li>농가과제와 지역과제의 종합적 해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과 생활의 일체적 활동</li> </ul>
	대표적 보급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VCR</li> <li>사륜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C</li> <li>사륜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C</li> <li>정보네트워크</li> <li>사륜차</li> </ul>
	주요한 제도의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縣) 농업대학교에 연수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동농업보급사업의 운영방침 명확화</li> <li>표준 정책의 교부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농업개량보급센터의 개청</li> <li>보급협력위원지도창설</li> </ul>

〈표 3〉 생활개량보급사업의 주요 내용

부문명칭	주요내용
농업노동	<p>노동시간의 적정화, 작업방법, 작업환경 개선 중 농업노동개선에 관한 지도 : 농업을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 수 있을가, 인체에 해가 없는 농약 뿌리는 방법은 무엇일까, 법인화·고용노동력의 활용에 대응한 노무관리, 고용자의 후생관리 등</p>
농가경영	<p>농가경제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생활설계, 가족구성의 주체적 역할을 배려한 가족관계 확립 등 농가경영의 확립과 능력개발에 관한 지도 : 가족경영협약을 맺도록 하는 것이 주요 추세이다. 가정에 따라 다르나 가족간에서 서로 이야기를 해서 협정을 맺고 농사에 공동참여자의 한 사람으로 여성의 지위를 높이는 것과 관련되며 이를 기업경영방식으로 받아들인다. 현재 22,000 농가가 협약을 맺었다. 농업을 통해서 여성은 단순히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자의 입장에서 키운다. 또한 고령화에 대응한 생활·경영환경의 개선이다.</p>
농산물활용	<p>지역특산품의 가공방법 개선과 식품의 새로운 용도개발 등 지역특산품 만들기 지도 : 농수산 여성 起業(여성이 일으키는 기업이라 해서 한자를 조성)이 7,600개소가 있다. 12,000개~15,000개소의 直賣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地産地消 9지역에서 나는 식품을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하는 개념, 활성화 되도록 캠페인 차원의 지원)</p>
농촌환경	<p>생활환경개선, 경관조성, 환경보전 등에 의한 농촌담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관한 지도 : 그린투어리즘과 관련한 농가민숙(民宿)을 농업의 발달로 보고 있다. 도시민이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 시냇물, 반딧불이가 보고 싶거나 할머니가 해 주시는 예전 음식이 먹고 싶을 때, 농촌의 다면적 기능으로서 농가의 특성을 살리고 농촌체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p>

1994년 10월 15일부터 농업개량보급소가 총합적인 보급지도를 위해 농업개량조장법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지역농업개량보급센터로 바뀌면서 보급센터의 주된 업무가 바뀌었다. 농업노동의 개선지도, 농촌의 생활환경개선, 농촌여성의 능력 개발과 조직 활동의 촉진 지도, 기타 농업경영, 농촌의 활성화를 위한 지도, 상담 등이다. 생활개선 보급지도활동은 전문적이고 보다 충실한 보급지도 활동을 목표로 중점과제인 농업노

동, 농가경영, 농산물의 활용, 농촌환경개선 활동을 중심으로 분담제 - 전문분담방식을 도입 활동하고 있다.

### 3) 연수체계

생활관계 직원의 연수는 농림수산성 농림수산연수소 '생활기술연수관'에서 실시한다. 1958년 10월에 사단법인 농산어가생활개량연구회가 미

〈표 4〉 연 수 유 형

연수유형	연 수 내 용
보급기초연수	보급기초연수 1~2년생
과제해결연수	산지영농, 남여공동참여 기술고도화 연수(토양비료, 농학교재 등), 중앙 축산 기술 연수, 보급활동 지원 연수, 보급활동 관리 연수(전 지구센터 과장 연수)
국가시행연수	대규모 영농경영관리 연수, 중앙축산기술 연수, 경영관리 통신강좌, 경영지원 연수, 지속적 농업실천기술 연수, 유통 마케팅 연수, 지역과제 management 연수, 농정과제 연수, 관동지방 블록 신입자 연수, 관동 프로 고도경영 지원 연수

\*주: 연수는 전문기술원과 개량보급원에 따라 달리 실시하고 있다.

국 특PELLER 재단 등으로부터 기부를 받아 ‘생활 개량기술관’을 건립하여 1990년 6월 농림수산성 농잠원에국 부인·생활과 ‘생활기술연수관’으로 개칭하였다. 1992년 10월 농림수산성 농림수산 연수소 ‘생활기술연수관’ 변경 운영되고 있다. 주요 기능으로는 생활개선에 관한 새 기술, 자료의 수집 및 전시, 생활개선보급직원의 연수, 피복·음식·주거·가정관리 등의 기술에 관한 실험연구, 동남아시아 지역 연구자 훈련 등이다. 관장, 연수지도관 4(노동관리·농촌환경·농가경영·식품가공분야 각 1명), 행정직원 4인 등 총 9명이 운영하고 있다. 시설로서는 본·별관, 다목적 교실 1, 실험실습실 4, 숙박실 10, 컴퓨터·도서자료·정보자료실, 식당·주방·세탁실 등이다.

연수대상자는 도도부현의 보급직원(전문기술원 및 개량보급원), 농림수산성 직원지방공공단체 직원(보급직원 이외) 등이며 주요연수내용은 농가·농촌생활의 특징과 동향, 농가·농촌생활에 관한 과제와 그 해결방안, 농가·농촌생활 과제해결을 위해 농업인 등에 대한 지도·지원 방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연수유형은 〈표 4〉와 같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전문기술원

도도부현(都道府縣)의 시험연구기관이나 현청에 배치되어 시험연구 기관과의 연락, 전문

사항이나 보급활동에 관한 기술이나 방법론에 관하여 조사 연구하고 개량보급원의 지도자적 역할을 한다. 전문기술원의 임용은 국가가 시행하는 전문기술원 자격시험에 합격한 개량보급원, 시험장 연구원 중 임용되어 쌀 농사, 채소, 농업경영, 생활개선 등 전문분야를 담당한다. 활동으로서는 都道府縣 보급활동 기본지침 작성, 개량보급원 지도(보급센터, 보급원활동 현장 순회, 시험장을 활용한 개량보급원의 연구 기획 추진), 조사연구(기술, 경영문제, 농촌생활과제, 포장기술 실증을 포함하는 조사연구), 시험연구기관, 행정기관, 농업단체, 교육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의 창구, 보급활동을 중심으로 한 사업·시장과의 연계 등이다. 연수체계는 〈표 5〉와 같다.

(2) 개량보급원

생활개량보급직원의 중앙단위연수는 농림수산성 농림수산연수소 생활기술연수관(Training Institute for Rural Life Improvement)에서 담당한다. 각 기별로 나누어 목표를 달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경력을 쌓아갈수록 기획, 관리능력 확립에 중점을 두고 있다. I기(기초지도력 확립), II기(전문지도력 확립), III기(종합지도력 확립), IV기(기획·관리능력 확립)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표 5〉 전문기술원의 연수체계

	신입자 연수	전문기술연수, 농정과제연수
국가단위 (집합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기술원의 역할과 활동</li> <li>• 개량보급원의 지도방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 시험연구기관, 연수기관에 실시</li> <li>• 고도선진적인 전문기술의 강화, 농정의 중요 과제</li> </ul>
현 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대학, 시험연구기관 등에 개별 파견</li> </ul>

\*주: 이 외에도 전문기술원의 조사연구, 연구회활동 등을 연수의 일환으로 자리잡고 있다.

〈표 6〉 생활개량보급직원의 중앙단위연수의 기별 목표

연수목표	I 기 기초지도력 확립	II 기 전문지도력 확립	III 기 종합지도력 확립	IV 기 기획·관리능력 확립
보급센터단계 (자기연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신입기 연수 (개별연수) - 동가체험 연수 - 현지과제실증 연수                 </div>			
	현지과제해결 연수			
	자기능력개발 연수(그룹학습의 실시, 단체·민간연수, 통신강좌 등 참가)			
縣 단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신입기 연수 (집합연수) - 시험연구기관 연수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text-align: center;">기술·경영능력 강화연수</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text-align: center;">종합과제해결연수</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text-align: center;">기획·관리 연수</div>
	유학파견연수(해외파견연수, 국내유학연수 등)			
국가 단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text-align: center;">신입기 연수</div>	농정과제, 기술·경영 연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text-align: center;">센터소장 연수</div>

<표 7> 생활기술연수관에서 실시한 2003년의 연수과정

구 분	연수명칭 및 주요내용		연수대상자	인원	연수기간(일수)	
전문기술 연수	긴급 과제 연수	식량안전생산	「전문기술원신임자」 연수	30	5. 20 ~ 5. 23(4일간)	
		도시농산어촌 교류		30	6. 24 ~ 6. 27(4일간)	
	전문 연수	생활관련기술기초 연수 (농촌사회·생활관련 지식 및 기술)		신입전문기술원 등	20	7. 15 ~ 7. 18(4일)
		노동관리분야			20	5. 27 ~ 5. 30(4일)
		농가경영분야			20	6. 3 ~ 6. 6(4일)
		긴급지도활동			20	6. 17 ~ 6. 20(4일)
		식품가공분야			20	7. 8 ~ 7. 11(4일)
개량보급원 연수	신규자 기술 연수 (농촌사회·생활관계)		신임기의 개량보급원	20	10. 20 ~ 10. 24(4일)	
	기술강화연수	농업노동관계	경험연수 4~14년	20	9. 29 ~ 10. 10(4일)	
		농가경영관계	개량보급원	20	11. 10 ~ 11. 21(4일)	
	농정 과제 연수	지역특산물 연수		경험연수 4~14년 개량보급원	30	9. 16 ~ 9. 19(4일)
					30	12. 9 ~ 12. 12(4일)
30					9. 9 ~ 9. 12(4일)	
지방공공단체 직원 연수	농촌생활관련 지방공공단체 직원 연수			30	11. 4 ~ 11. 6(4일)	
농림수산성 직원 연수	계장행정 연수(생활관계)			30	1. 20 ~ 1. 22(4일)	
	생활관계 기초 연수			30	5. 7 ~ 5. 9(4일)	
	생활기술 기초 연수			20	6. 30 ~ 7. 3(4일)	
				25	10. 27 ~ 10. 30(4일)	
경영·부기 능력향상 연수			30	8. 26 ~ 11. 25(4일)		

### Ⅲ. 21세기 생활개량보급 사업의 주요 과제

#### 1. 남녀공동참여사회 형성

여성은 농업취업인구의 60%를 점유하는 등 농림수산업의 중요한 담당자이며 경영에 있어서는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등 그 역할은 극히 큰 것이다. 여성은 농산어촌에서 생활의 운영과 지역사회 유지, 활성화에도 크게 공헌하고 있어 여성의 참여에 대한 기대가 크다. 여성은 스스로, 인생을 자주적으로 설계하고 그 공헌에 걸

맞는 평가를 받아 일·가정·지역에서 자신감과 충실감을 가지고 생활하여야 하며 대등한 파트너로서 남성과 함께 경영 및 이와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는 일이 가능한 사회 형성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과소화, 소자(少子)·고령화의 진전 등 농산어촌을 둘러싼 상황변화에 적확(的確)하게 대응하는 시책을 설명하고 남녀공동참여사회 형성을 꾀하도록 강구하는 것이다.

남녀공동참여 사회기본법(1998년), 식료, 농업, 농촌기본법(1999년)에 입각하여 농촌 노동력의 60%를 차지하는 여성의 지위 명확화와 참여를 촉진하고 남녀를 불문하고 서로 능력과 역할을

인정하는 농어촌에 있어서 남녀공동참여사회 형성을 위해 대처방침을 위해 법률 및 제도, 시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창업활동(起業活動)을 장려하고 있는데 기업이라 함은 주로 한자로 企業이라 쓰는 것이 일반적이나 여성들의 활동을 촉구하여 일어나게 한다는 뜻에서 起業이라는 의미로 쓰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경영을 유지 발전시키면서 다음 세대에 이어가도록, 지금 가족간에 정해 두고 싶은 것을 문서로 교환하는 가족경영협정의 체결을 강조하여 ①경영계획과 생활설계의 수립, ②경영이념의 명확화, ③농업과 생활의 분리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전국적으로는 2003년 현재 25,000 가구가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다.

남녀공동참여사회의 형성을 위한 우수사례로서 구마모토현청(雄本懸廳)을 방문하여 사례를 들었는데 이 지역은 일본의 규슈(九州) 지역에 위치해 있으면서 남녀평등의 실현에 가장 앞서서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공교롭게도 도지사가 여성(潮谷義子)으로서 남성도 여성도 서로 즐거운 마음으로 책임을 지는 가운데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공동참여사회의 실현은 구마모토 지역만이 아닌 세계 공통의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1994년부터 'Harmony Plan 구마모토'를 정책으로 채택하여 남녀가 구축하는 풍요로운 지역 만들기를 목표로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회만들기를 정책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심의회 등에 여성위원의 등용 등을 촉진하여 일련의 성과를 올리고 있으나 현실 사회에서는 남성의 일, 여성의 일 등으로 구분하는 고정적인 성역할 분담의식이 강하게 남아 있어 여성의 사회참여가 쉽사리 진행되고 있지 않다. 어린이를 적게 낳고 고령화의 진전 등 사회경제의 급속한 변화는 고용형태와 가족형태의 변화, 가치관의 다양화를 가져오고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자녀도 건강하게 양육될 수 있는 환경 정비, 여성에 대한 폭력의 근절 등 남녀공동참여에 관한 중요과제에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것을 위하여 평성 12년에 종료하는 현행의 프랜에서 남겨진 과제와 새로운 과제를 병행

하여 과제를 해결하고 구마모토 종합계획 '파트너십 21 구마모토'의 과제를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웠다. 이러한 계획의 실천으로 남녀가 서로 이해하고 자립하는 사회 형성을 위해 현은 물론 시정촌과 기업, 단체, NPO(Non Profit Organization), 자원봉사자 등 모두가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1) 농어촌 남녀공동참여 추진방침의 기본적인 개념

남녀공동참여 사회기본법, 식료, 농업, 농촌기본법(제26조)에 입각하여 농촌 노동력의 60%를 차지하는 여성의 지위 명확화와 참여를 촉진하고 남녀를 불문하고 서로 능력과 역할을 인정하는 농어촌에 있어서 남녀공동참여사회 형성을 위해 대처방침을 나타낸다.

## 2) 법률 및 제도, 시책의 전개

### (1) 사회참여에 대한 농업, 농촌 면에 있어서 지원

농산어촌에 있어서 남녀공동참여사회의 형성을 위한 환경정비가 중요하므로 여성의 사회참여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2) 여성의 능력개발과 농업경영 참여

여성의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경영의 복합화, 다각화 등 여성의 경영참여 촉진, 여성의 과중한 노동의 경감과 쾌적성을 시점에 둔 환경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3) 남녀 공동참여사회의 형성을 위한 시책 전개에 대한 대처 강화

원칙적으로 정부가 조성조치를 세우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목표 달성을 위한 대처 등, 농산어촌에 있어서 남녀 공동참여사회 형성을 위한 대처를 사업채택 또는 사업실시에 있어서 유의사항, 또는 채택기준으로 하는 것과 제도 면의 충실에 노력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세우고 있다.

### 3) 지침의 통지

본 지침(1999년 11월 1일자의 11농산 제6825호, 각 국장 및 장관연명 통지)은 각 도도부현 지사, 각 지방농정국장, 오키나와 종합사무국장, 각 삼림관리국장 및 농림수산관계단체에게 통지했다.

### 4) 농산업에 있어서의 농촌여성이 처한 상황

#### (1) 농업에서의 여성의 상황

농촌 여성은 농업취업 인구의 약 60%를 차지하는 등 농업과 생활 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농업취업인구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비율을 나타내면 <표 8>과 같다.

#### (2) 여성의 사회참여 현황

농업위원 또는 농업협동조합의 임원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아

<표 8> 농업취업인구에 차지하는 여성의 비율 추이 (단위: 천명, %)

구 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1년	2002년
농업취업인구	6,363	5,653	4,140	3,891	3,820	3,751
여성 인구	3,885	3,403	2,372	2,171	2,126	2,083
여성의 비율	61.1	60.2	57.3	55.8	55.7	55.5

출처: 농림수산성 농림업 센서스, 농업구조동태조사.

- \* 주: 1. 농업취업인구는 16세 이상의 세대구성원 수(1995년도 이후에는 15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이며, 자영업에만 종사하는 자와 자영업과 기타 일에 종사한 사람 가운데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의 합계
- 2. 1995년도 이후에는 판매농가의 수치

<표 9> 여성 사회 참여 비율 (단위: 명, %)

구 분	1985년	1990년	1995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농업위원 수	64,080	62,524	60,917	60,052	59,702	59,254	58,801
그 가운데 여성	40	93	203	479	977	1,081	1,318
여성의 비율	(0.06)	(0.15)	(0.33)	(0.80)	(1.64)	(1.82)	(2.2)
농협개인정조합원 수	5,535,903	5,537,547	5,432,260	5,335,636	5,287,799	5,240,785	5,202,171
그 가운데 여성	574,353	667,468	707,117	734,003	739,550	746,719	769,748
여성의 비율	(10.38)	(12.05)	(13.02)	(13.76)	(13.99)	(14.25)	(14.80)
농협임원 수	77,490	68,611	50,735	40,488	36,114	32,003	29,154
그 가운데 여성	39	70	102	143	158	187	213
여성의 비율	(0.05)	(0.10)	(0.20)	(0.35)	(0.44)	(0.58)	(0.73)
어협개인정조합원 수	381,758	354,116	317,553	293,786	284,490	275,715	267,381
그 가운데 여성	21,180	20,425	18,337	16,814	16,104	15,655	15,289
여성의 비율	(5.55)	(5.77)	(5.77)	(5.72)	(5.66)	(5.68)	(5.72)
어협임원 수	22,563	22,022	20,449	19,160	18,812	17,974	17,381
그 가운데 여성	13	22	29	45	54	43	47
여성의 비율	(0.06)	(0.10)	(0.14)	(0.23)	(0.29)	(0.24)	(0.27)

출처: 농림수산성 구조개선과, 협동조직과, 수산청 연안과 조사.

- \* 주: 농업위원: 매년 8월 1일 현재. 단 1990년과 1993년 이후에는 10월 1일 현재.

농 협: 각 사업연년도말(농협에 따라서 4월말~ 익년 3월말)현재.

어 협: 각 사업연년도말(어협에 따라서 4월말~ 익년 3월말)현재.

직도 낮은 수준이다. 농촌사회에 있어서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 여성의 위치가 낮고 남편이 가족 농업경영을 대표하는 의식이 깊이 뿌리내려 있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 2. 신규 취농 촉진

신규 취농 청년(39세 이하)의 수는 1990년에 4,300명이었으나, 그 이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2년에는 11,900명으로 증가했다. 고연령층(40세 이상 65세 미만)의 다른 산업에서 이직한 취농자의 수는 1990년에 10,700명에서 2002년에는 45,600명으로 늘어나 이른바 신규로 취농(영농후계자 이외의 취농자) 수는 1990년에 69명에서 2001년에는 53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취농 경로의 다양화가 진행되고 있다.

### 1) 상담활동 및 정보 제공

신규 취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전국 및 시도도부현의 신규 취농상담센터에서 취농개발과 기술 습득을 위한 연수, 자금을 관련된 정보, 취농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상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농업법인으로 취농을 촉진하기 위해 1997년도부터 대도시권과 주요 도시에서 농업법인합동 취농 설명회를 열고 있다. 전국 신규 취농상담센터에서는 2003년 5월 1일부터 직업안정법에 의거한 무료 직업소개사업을 개시하고 취업희망자와 농업법인과 연대하여 활동을 하고 있다. 신규 취농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자금(취농지원자금, 경영개시자금)과 취농준비학교의 정보를 구직자에게 널리 제공하기 위해 전국의 네트워크에 제도를 주지시키기 위한 안내지를 배포하고 있다.

### 2) 기술 및 경영연수의 체계

농업기술과 경영습득을 꾀하고 원활한 취농을 할 수 있도록 도부현(道府縣)의 농업대학교 이외에 일을 하면서 농업의 기초를 배울 수 있는 취농준비학교, 선진경영체제에서의 OJT 연수 등

연수 코너의 충실을 도모하고 있다.

### 3) 농업 체험학습의 촉진

전국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2002년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농업체험학습을 실시하는 초·중·고교는 57.5%(초등학교 71.0%, 중학교 29.7%)로 작년보다 5.5% 증가했다(초등학교 5.0%, 중학교는 4.2% 가가 증가).

농업 체험학습에 대한 지원으로는

- (1) 학교 교직원에 대한 농업 체험학습의 지도에 도움이 되도록 실적인 연수 실시
- (2) 농업 체험에 참가하는 어린이들의 그룹(agreement club)의 조직화
- (3) 농업 체험학습 실시에 있어서 지도자의 등록과 교류추진원의 설치
- (4)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한 농업의 이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농업부독본의 작성 등 농업 체험학습을 추진하기 위한 각종 대응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

## 3. 농산어촌에 있어서 고령화의 현황

농촌의 고령화는 큰 폭으로 선행하고 있으며 농가 인구에 차지하는 고령자(65세 이상)의 비율을 살펴보면 2002년도에는 30%로 총 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은 19%로, 큰 폭으로 상회한다. 또한 농업취업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의 비율을 살펴보면 55%로 과반수가 고령자이다. 최근의 고령자 대책을 둘러싼 동향으로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이 1995년 12월 16일에 제정 시행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사회가 구축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행해져야 함을 말하고 있다.

- (1) 국민이 생애에 걸쳐서 취농과 기타 다양한 사회적인 활동에 참가할 기회가 확보되는 공정하고 활력 넘치는 사회
- (2) 국민이 생애에 걸쳐서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일원으로 존중을 받고 지역사회가 자립과 연대의 정신에 입각하여 형성되는 사회
- (3) 국민이 생애에 걸쳐서 건강하고 충실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풍요로운 사회

1999년에 제정된 식료, 농업, 농촌기본법의 제27조에 고령 영농인의 활동촉진으로서 고령 영농인이 역할분담에 따라서 삶의 보람을 가지고 농업관계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정비나 고령 영농인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취지의 규정이 담겨 있고 식료, 농업, 농촌기본계획(2000년 3월 책정)(抄) 중의 7항에 고령 영농인은 농업생활과 그에 관련된 모든 활동에 관해 풍부한 경험과 지식 및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의 농업 생산에 관한 대처나 어린이들의 농업체험 지도에 본인의 경험과 기술을 적절한 활용과 고령 영농인의 역할분담의 명확화, 고령 영농인을 배려한 환경정비에 의한 복지 향상을 강조한다. 농산어촌 고령자 비전추진실천사업을 1996년도부터 실시하여 거의 모든 시도부현에서 고령자 비전의 책정을 완료하였고 이미 약 250 시정촌(市町村)에서도 책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 4.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쌀의 이미지 개선

일본 어디를 가든 고속도로 휴게실, 지역단위 휴게실 등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농가단위에서 생산한 생산물을 농가 실명제로 판매함은 물론이고 너무 다양한 가공품을 쉽게 접하는 것을 경험하였다. 제품의 종류를 굳이 들자면 절임류에서부터 발효식품, 심지어 아이들이 좋아하는 집에서 만든 스낵류까지도 다양한 디자인으로 상품화되어 소비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또 단순한 상품화가 아닌 고급상품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긴자의 「쌀 갤러리」는 일본 최고의 고급스러움과 화려함으로 잘 알려진 銀座(우리나라의 명동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다. 1991년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인스턴트식품을 위시한 식생활 패턴의 서구화로 쌀의 소비가 감소함에 따라 쌀의 소비를 촉진하여 쌀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설립하였는데 쌀 소비 감소에 따라 소비자 특히, 20~30대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하기 위해 변두리인 가부키 쪽에서 현재 변화가인 긴자로

1998년에 이전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는데 일본에는 현재 오사카, 후쿠오카 등 3곳에서 「쌀 갤러리」가 운영되고 있다.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쌀이 「살찌는 식품」이라는 관념을 없애고 쌀에 대한 우수성과 새로운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인테리어 또한 젊고 세련된 분위기를 갖추고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월요일은 휴관이고 코너에 따라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하고 있다. 쌀 농사의 역사와 쌀의 우수성을 그래픽패널로 전시 홍보하고 청소년들의 벼농사 체험 장면을 시기별로 담은 사진을 전시하여 젊은이들로 하여금 벼농사의 간접체험의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갤러리의 공간마다 벼와 쌀에 관련된 모형과 건 표본으로 장식되어 쌀 갤러리의 풍치를 느낄 수 있도록 연출되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코너를 운영함으로써 소비자가 직접 보고, 느끼고, 먹어봄으로써 쌀에 대한 이미지 변화를 통해 소비 확대를 꾀하고 있는 곳으로 부러움과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컸다. 특히 방문객 중에는 젊은 학생들 초·중등·대학생으로 보이는 연령층들이 많이 방문하고 꽤 열심히 자료를 수집하고 직접 밥맛을 시식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 IV. 결 론

우리의 생활수준보다 많이 앞선 나라여서 사업의 내용도 저만치 앞서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였다. 평성년대(1989년부터)에 들어서면서부터 생활개선사업의 내용이 크게 네 가지로 구체화되어 추진되었다. 쾌적한 농작업 환경의 확립을 위한 농업노동, 식품가공 등에 의한 여성의 기업(起業)활동의 지원을 하는 농산물 활용, 농가경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농가경영, 자연환경, 경관의 보전, 다원적 기능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촌 환경이 그것이다.

이 네 가지 테마가 십여 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생활을 둘러싼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 해 볼 때 종합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

다고 생각되며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일본은 국가차원의 농촌지도사업을 정확한 계획수립에 의해 법률과 제도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지방자치가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 방향과 계획이 정확히 예측되고 농림수산성, 현 지역농업개발보급센터를 통하여 일관성있게 추진되고 있는 점에서 선진국인 일본이 아직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지도사업이 비록 인력의 규모 등의 감소는 계속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차원에서 비중있게 다루고 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이들 선진국에서의 농촌지도사업에 대해 규모의 축소에 시각을 둔 선부른 판단은 위험한 생각임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농가경영에 있어 가족원간의 분담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사회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가부장적 제도가 많이 남아 있어 아마 네 가지 과제 중 가장 개선하기 힘든 부분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농림수산성 등의 여성관련 자료를 보더라도 우리보다 그렇게 많이 앞서지는 않았음을 실제 조사결과를 볼 수 있었다. 시간이 다소 많이 걸리겠지만 아마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정책적인 과제로 추진되고 있으니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셋째, 농촌환경 면에서는 두 농가를 민박 체험한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지만 전반적인 상황은 이해할 수 있었다. 농가전통을 그대로 보전하고 우선 농촌환경이 잘 정돈되어 있었다. 지역활성화를 위한 마을 만들기(무라쓰꾸리, むらつくり) 등 일본은 만들기 사업을 정책적으로 많이 실시하는 나라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그런지 삼림 가꾸기며, 벼를 뺀 논을 보아도 질서정연한 모습 등 농촌경관이 아름답게 유지되는 노력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안정된 모습이면서도 깨끗한 농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넷째, 21세기에는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들을 법과 제도 안에서 정확한 방향성과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도 우리 한국과 마찬가지로 가부장적 제도가 사회의 여러 분야에 많이 남아 있다. 따라서 농가에서는 가정을 경영 할 때 뿐 아니라 농사일의 참여에 있어서도 여성이 보조자가 아닌 동등한 참여자로서 경영주와 대등한 권한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하여 가족경영 협정을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공식사회에서도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사회를 위하여 직위 등에 있어 여성공무원의 참여수준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우리도 여성부의 신설로 많은 불합리한 부분들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된 편견의 개선이 우선적이라고 생각된다. 법과 제도가 아무리 훌륭하게 정비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실행하고 움직이는 주체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 창업자들을 기업(起業) 활동이라고 까지 인위적으로 만들어 지원하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된다. 비록 규모는 작다고 할지라도 국가 전역에 걸쳐 내실있는 여성 기업가들의 역할은 여성 인력의 활용은 물론 부가가치 증대에도 이어지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여성의 능력과 잠재력을 한껏 높이는 것이 된다.

다섯째, 농업을 직업으로 가지려는 사람들을 위한 각종 자금의 지원 및 교육제도의 실현이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자금의 대부에 있어 대부를 받는 주체자의 능력과 여건에 따라 조건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의 경우 지원 받는 대상을 동일 대상으로 보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점은 신중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여섯째,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중 특히 농촌노인에 대한 대비를 눈여겨 볼 수 있었는데 농촌노인들이 가진 경험과 기술을 적절히 활용하고 젊은 세대에게 자연스럽게 물려주고 또 농업에서도 어린이 농업교육을 담당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쉽 없이 개발하고 의욕을 불어넣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도 각 부처에서 특징을 살려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위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는데 농촌관광 영역에서의 노인들의 역할을 적극 발굴하여 활용해야 한다는 논리들에 제기되고 있다.

일곱째, 농산가공품의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한 쉽 없는 아이디어 창출에 대한 노력을 볼 수 있다. 지도사업은 흔히들 시범사업이므로 몇 년간 지도한 후에는 다른 과제를 발굴해야 한다는 논리가 지금의 우리 사회에 지배적으로 퍼져 있다고 봐도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각 휴게소, 직매소 등에서 가공품을 많이 봤지만 한 가지 사업의 지속적이고 내실있는 추진이 있어야 사업의 성과와도 연결되어진다고 생각된다. 변화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지속되어야 한다.

여덟째, 쌀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배워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도시의 가장 중심부에 쌀을 주제로 한 다양한 코너를 운영함으로써 소비자 특히 젊은이들에게 쌀의 중요성을 역설하고자 직접 보고, 느끼고, 먹어봄으로써 쌀에 대한 이미지 변화를 통해 소비 확대를 꾀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기에 충분하였다. 특히 방문객 중에는 젊은 학생들 초·중등·대학생으로 보이는 연령층들이 많고, 또한 농립수산성과 문부과학성이 연대하여 학생들에게 농업교육을 강조하고 또 일정 한도에서 지역에서 나는 식품으로 학교급식을 하고 있다는 점도 지산지소(地產地所) 즉 우리의 신도불이에 해당하는 말로서 시사점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아홉째, 농촌지역을 방문하면서 농민들을 만나면서 느끼게 된 점이지만, 농촌주민들의 사고

방식의 많은 부분에서, 정부기관 중심이 아닌 위에서 내려가는 방식이 아닌 자발적 참여가 생활속에 많이 내재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 V. 참고 문헌

1. 농촌진흥청, 1979, 해외연수보고서 일본의 농촌생활개선사업.
2. 농촌진흥청, 1988, 일본의 농촌생활개선보급사업.
3. 농촌진흥청, 1989, 일본의 농업보급사업 및 생활개선보급·연구사업과 일촌일품운동.
4. 농촌진흥청, 1991, 일본의 생활개선사업.
5. 농촌진흥청, 1992, 일본의 생활개선사업 현황.
6. 농촌진흥청, 1993, 일본의 생활개선사업, 해외연수보고서
7. 농촌진흥청, 1994, 개방화시대의 생활개선사업 방향 정립을 위한 심포지엄, 선진국의 농촌생활개선사업.
8. 농촌진흥청, 1995, 일본의 생활개선사업.
9. 농촌진흥청, 2003, 일본의 농촌생활개선사업, 농업사회발전연구원 연구결과.
10. (사)생활개선중앙회·농촌진흥청, 2001, 선진국의 생활개선사업.
11. 조영철, 1995, 일본의 농촌지도사업, 일본연수보고서.
12. 社団法人 農産漁村女性・生活活動支援協會, 2003.11, 農山漁村の女性起業200選.
13. 佐賀縣農林部農産課, 平成 12年 3月 12, パトナ-シップ 經營をめざす 家族經營協定. (2004년 4월 6일 접수, 심사후 수정보완)